

GIST 설립 30주년 기념 오룡아트홀 이조흠 작가 초대전

- 11월 2일(목)부터 12월 27일(수)까지 오룡관 개최
- 이조흠 초대전 <Universe>, 관계망 이면의 사회와 개인적 존재 주목



2023.
11.02.^{TUE}
|
12.27.^{WED}

지스트 오룡아트홀 이조흠 초대전
Universe

▲ GIST 설립 30주년 오룡아트홀 이조흠 초대전 <Universe> 포스터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서양화가 이조흠 작가 초대전 <Univers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대전은 이조흠 작가의 팝아트적 요소가 가득한 총 29점의 회화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인다.

이 작가는 대중들에게 익숙한 캐릭터들과 패턴 등을 모티브로 현대인의 삶과 정체성을 묻는 작품을 표현한다. 성장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법한 사회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의 충돌, 거대한 사회 안에서의 고립감과 외로움, 관계망 이면에서의 사회적 존재와 개인적 존재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다.

이번 오룡아트홀 초대전 <Universe>에 전시되는 작품들 또한 유년기의 표상인 만화 캐릭터들을 매개로 향수는 물론 사회적 관계망, 시스템에 매몰된 현대인들의 불안 문제 등을 나타낸다.

이조흠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으며 롯데갤러리, 10년후 그라운드, 스페이스9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연 **지역 예술인이자 주목받는 청년작가**이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립미술관, 신세계갤러리, 성남아트센터 등에서 진행된 다수의 단체전도 참여했으며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북경 BSC 레지던스 등에서도 활동했다.

이조흠 작가는 "일상 속 아이러니를 겪거나 지쳤을 때, 사람들은 본인의 자아와 정체성에 대해 먼저 고민한다"면서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내 그림 어디인가에 자신의 모습을 넣어 보며 나만의 우주와 세상을 꿈꾸길 바라고,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 담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오룡아트홀 이조흠 초대전 <Universe>는 11월 2일(목)부터 12월 27일(수)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심 있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주말 개방 문의/ T.062-715-2628)

한편 오룡아트홀은 지역민의 관심으로 성장한 GIST가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 강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행사·회의·강연·세미나 등을 위한 다목적 건물인 **오룡관의 1·2층 내벽에 조성한 전시 공간으로**, 지난해 말부터 이번 <Universe> 전시까지 총 6회의 초대전을 열어 내외부인 관람객을 위한 문화 향유의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